

■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용은

봉급 300만원 공무원, 月 6만원 더 내고 18만원 덜 받아

7급 월 173만→157만원...하위직일수록 덜 깎여

기여율 5년간 9%로 인상...총재정부담 333조원 줄여

5년이상 혼인 유지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액 1/2 지급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높아 더 많이 내게 하고 지급률, 즉 연금액의 비율을 낮춰 덜 받게 한다는 점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약 333조원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혁안이 연금액의 '하후상박' 개념인 소득재분배를 일부 도입했으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

인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해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는 크게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9급 공무원, 월 6만원 더 내고 18만원 덜 받아=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를, 즉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기여율이 인상되면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여야는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

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여야는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년 동안 0.2% 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내년에 임용되는 교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연금액은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006년 임용 교원은 195만원에서 171만3000원으로, 1996년 임용 교원은 230만원에서 21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이번 합의안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소득재분배 방식은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했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 하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 요건은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결혼 유지하다 이혼하면 배우자도 연금 받아=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 없었다. 또 공무원 상 장애뿐만 아니라 비(비)공무원 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 연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70%를,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전체의 60%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이 60%를 받도록 통일했다.

◇구조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해=이번 합의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의 반대와 시한에 쫓겨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현재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지진피해 네팔 도와주세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네팔 국민을 위해 후원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3일 광주시 동구 YMCA앞에서 진행된 모금행사에서 한 시민이 성금을 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홍준표, 이르면 주내 소환

홍지사·이완구·성완중 연결고리 포착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52)씨를 2차례 소환조사한 데 이어 홍 지사의 주변인물 중 핵심 측근 3명을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윤씨를 3일 재소환했다.

윤씨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홍 지사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윤씨가 경남 기업 비자금 중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남 처음 소환돼 3일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1차 조사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묻고 이 돈이 고스란히 홍 지사 측으로 전달됐는지, 입증 자료가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주변인물 중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중요 참고인 3명을 특정하고 4일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주변 인물 중 6명이 핵심 참고인으로 압축된 셈이다. 이들은 홍 지사·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수사 진척이 빠른 홍 지사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네팔 사망자 7000명 넘어 전남도, 나사 풀린 공직기강

네팔 내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발생한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일 현재 최소 7040명으로 확인됐고, 부상자가 1만 4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네팔군 장병 9명과 경찰 4명을 비롯해 외국인 54명이 포함됐다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내무부는 대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고르카 지역으로 통하는 길이 장애물로 막혀 구조·구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시로 마련된 천막에서 생활하는 이재민 수천 명의 위생 상태는 물론 물과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퇴임 앞둔 부군수, 아내 회사서 영업 활동 등 14명 적발

부군수 출신으로 퇴임을 앞두고 공로 연수중인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가 취직한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이 회사 대표를 부군수들에게 소개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4일부터 17일까지 설명절 공직감찰에 나선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한 기초자치단체 부군수를 역임하다 1월7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 A씨(4급)의 아내는 같은 달 19일자로 보성군 농공단지 관공제조

업체에 입사해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A씨도 아내가 취직한 지난 1월 19일부터 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했다. 특히 A씨는 이 회사 대표와 동내 3개 군을 방문해 부군수들에게 회사 대표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영업창구 역할을 했다.

최근 열린 전남도인사위원회는 A씨가 오는 6월 퇴임에 징계의 실효성이 없

다는 이유로 '불문 경고'하는데 그쳤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A씨 이외에도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민원 서류를 분실한 뒤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모두 14명을 적발해 3명은 징계하고 10명은 훈계했다.

전남도청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제기한 '공사비 허위 실적신고 조사요구'와 관련한 서류를 받았다가 분실했다. 민원인의 답변 요구를 받고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송정역 이용객 하루 평균 1만784명

KTX 개통 한달...市 증편 건의

지난 4월2일 호남선KTX가 개통한 후 KTX 송정역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난 4월 2~29일 호남선KTX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광주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784명으로 전남도 광주역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용객 6615명에 비해 61.34%(4169명)가 증가했다. 공식 개통 둘째주인 지난 4월 11일(토요일) 광주 송정역 이용객은 1만5615명으로, 개통 후 최대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매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코레일측에 KTX 증편을 요구하는 한편 수서발KTX 개통 시 추가 증편 등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행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고교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YmNAVER 백세생활건강 ▶ ▶ ▶ 검색하세요
문의 H.P.010-3598-7080/1899-3975

30% 할인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근조화환3단

30% 할인

결혼, 고회,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축하화환3단

전국꽃배달서비스 화환 ▶ 100,000
전국농장직영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